

# 멕시코, NAFTA 이후 거시경제지표 변화

김 윤 식\*

NAFTA 이후 멕시코의 1인당 GDP는 증가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NAFTA 이후 수출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1. 1인당 GDP의 변화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 부문에서의 변화를 보기 위한 한 방법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NAFTA 이후 1인당 GDP의 변화, 농산물 교역의 변화, 외국인 직접 투자의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NAFTA가 멕시코 농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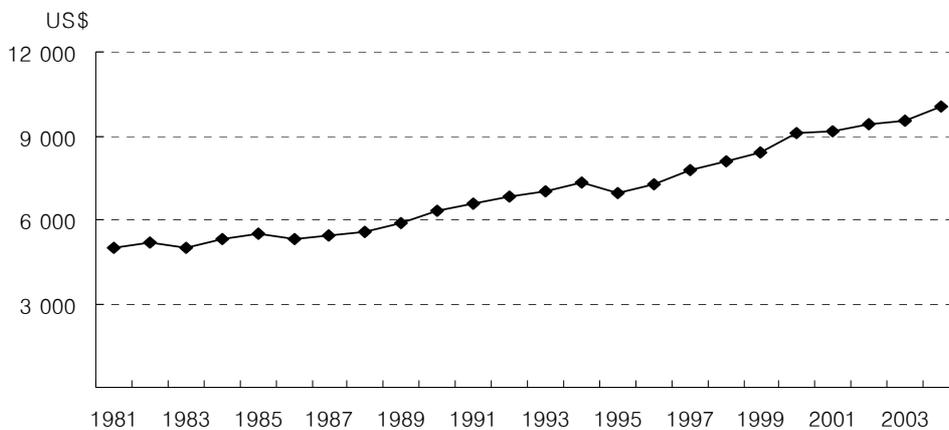
1인당 GDP는 1981년과 1994년의 외환 위기 시기만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NAFTA 이후 1인당 GDP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추세와 더미 변수를 이용하여 단순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OECD의 자료로 1981~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이다. 단순회귀식을 이용하였을 때, 양의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Cochran-Orcutt 방법으로 다시 추정하였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yunshik@krei.re.kr](mailto:yunshik@krei.re.kr) 02-3299-4383

분석 결과, NAFTA 체결 이후 1인당 GDP 증가율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이전에는 1인당 GDP가 연간 \$174 정도씩 증가하였으나, NAFTA 이후에는 연간 \$216씩 증가하였다. 또한 1994년 말 발생한 폐소화 위기로 1994-96년 사이에 1인당 GDP가 \$4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 멕시코의 1인당 GDP 추이, 1981~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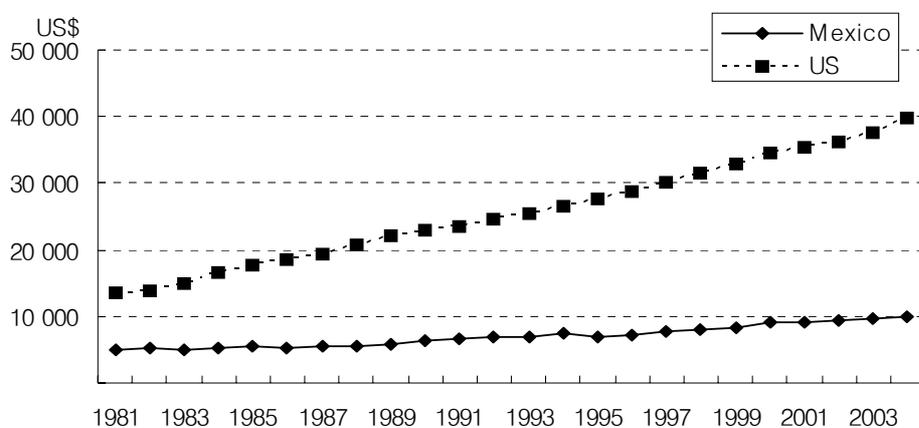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보면, NAFTA 이후 1인당 GDP 증가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NAFTA가 멕시코의 1인당 GDP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설을 수용할 경우, 다음에 제기할 질문은 과연 NAFTA로 인해 멕시코의 1인당 GDP가 미국 수준으로 수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후 1인당 GDP가 미국 수준으로 수렴한다면 FTA를 체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차이가 더 확대되었다면 FTA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ederman *et al.* (2005)은 1960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멕시코의 1인당 GDP가 미국의 1인당 GDP에 수렴하는지를 분석하였다. Lederman *et al.*은 멕시코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인당 GDP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1인당 GDP의 50%에 해당하는 격차가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1인당 GDP 차이는 더욱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

의 그림을 보면 분명해진다. 멕시코의 1인당 GDP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미국의 1인당 GDP는 더 빠르게 증가하여 시간이 갈수록 두 나라 간 1인당 GDP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그림 2 멕시코와 미국의 1인당 GDP, 1981~2004년



멕시코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미국과의 FTA를 통해 1인당 GDP의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과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만으로는 미국과의 소득 격차를 좁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2. 농산물 교역의 변화

NAFTA 체결 전후의 대미 농산물 교역 변화를 살펴보면, NAFTA 체결 이전에 대미국 수출은 연간 2.8%씩 증가한 반면 대미국 수입은 2.3%씩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NAFTA 체결 이후 대미 수입이 연평균 4.4%씩 증가하면서 연평균 3.4%씩 증가한 수출의 증가속도를 추월하였다. 이는 NAFTA 이후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표 1 대미 농산물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 1990~2005년

단위: %

	대미국 수출	대미국 수입
전 기간(1990-2005)	3.2	3.6
NAFTA 이전(1990-1995)	2.8	2.3
NAFTA 이후(1995-2005)	3.4	4.4

자료: USDA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가 계산 결과.

1995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연평균 수출 변화율을 보면, 아보카도, 토마토, 고추류 등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995년 이전보다 높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바나나와 커피는 1995년 이전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5년 이후 수출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감귤류, 딸기, 양파 등은 수출증가율이 1995년 이전보다 둔화되었다.

표 2 NAFTA 전후 주요 품목의 연평균 대미 수출 변화, 1990~2005년

단위: %

	전체 기간 1990-2005	NAFTA이전 1990-1995	NAFTA이후 1995-2005
바나나	-2.7	4.0	-5.9
감귤류	7.1	8.8	6.2
아보카도	27.9	26.4	28.7
딸기	3.8	5.4	3.0
양파	2.9	5.0	1.9
고추류	3.8	2.3	4.6
토마토	2.2	0.8	2.9
커피 및 커피제품	-1.5	5.1	-4.5

자료: USDA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가 계산 결과.

199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옥수수과 수수의 연평균 수입액 증가율은 1995년 이전의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었으며, 대두와 밀의 연평균 수입액 증가율은 1995년 이전보다 다소 둔화된 현상을 보인다. 축산물은 대부분의 품목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는데, 특히 1995년 이후 돼지고기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표 3 주요 품목별 대미 수입 변화, 1989~2005년

단위: %

		전체 기간 1990-2005	NAFTA 이전 1990-1995	NAFTA 이후 1995-2005
곡물	옥수수	1.4	-1.0	2.6
	수수	-0.2	-2.2	0.8
	대두	4.3	7.8	2.5
	밀	6.4	9.5	4.8
축산물	쇠고기	5.8	0.5	8.5
	돼지고기	6.9	0.2	10.3
	닭고기	4.6	6.3	3.8
	낙농제품	6.3	6.2	6.3

자료: USDA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자가 계산 결과.

종합하면, NAFTA 체결로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그 이상 증가하여 무역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중에서 아보카도, 토마토, 감귤류 등은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바나나와 커피 제품의 수출은 NAFTA 이후 둔화되거나 감소하였다. NAFTA 이후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사료곡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3. 농업 및 농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변화

멕시코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 개방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NAFTA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멕시코는 가공 식품 및 음료 산업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이루어지는 국가들 중 그 규모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 따르면 멕시코의 가공식품 및 음료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 투자는 2004년에 82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명목가치로 볼 때 1996년 수준의 2배에 달하고 1984년 수준의 20배에 달하는 액수이다(USDA).

1999~2004년의 멕시코 통계를 살펴보면, 농산업 및 농업 부문에 대한 총

FDI 중 음료(soft drink), 담배 제조업, 양조(brewing), 낙농제품 부문이 최대의 FDI 수혜산업이었다. 또한 가축 혼합사료, 과일 및 채소 가공, 껌, 데킬라, 사탕제조업, 옥수수 제분산업 등에도 비교적 활발한 FDI가 이루어졌다. 1994~2004년 기간에 이루어진 FDI 중 24%가 일반음료와 무알콜성 음료산업에 투입되었으며 18%가 각각 담배제조업 그리고 맥주 및 맥아(malt)에 투자되었고 15%가 낙농제품 부문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USDA).

멕시코 경제부(Secretariat of the Economy)에 따르면 NAFTA 이후 1994~2004년 기간 동안 멕시코는 매년 큰 폭의 FDI가 이루어졌다. 1994년에 106억 원 수준이던 FDI는 2001년에 27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후에는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 부문에 대한 FDI는 1994년에 1천만 달러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에 9,000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1994~04년에 농업부문에 투자된 FDI는 총 4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표 4 멕시코에 유입된 부문별 FDI

단위: 백만 달러

	1994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농업	10.8	11.1	29.1	91.6	63.8	92.7	10.6	16.4
광공업	97.8	79.1	49.4	198.9	21.5	247.8	77.5	146.3
제조업	6,191.9	4,862.1	5,010.1	9,911.9	5,791.5	8,646.8	6,685.2	12,694.2
전기	15.2	2.1	25.1	134.0	333.4	397.6	322.5	202.4
건설	259.6	49.2	136.3	172.1	107.9	347.7	82.8	384.9
상업	1251.5	1,012.5	1,038.5	2,437.0	2,218.9	1,778.3	1,393.9	1,183.0
교통	719.3	876.3	439.3	2,081.6	2,781.9	832.0	1,630.8	1,253.5
금융	941.7	1,070.1	732.6	4,857.4	14,414.6	5,764.5	3,306.3	5,488.8
기타	1,158.8	412.1	912.9	2,051.3	1,695.1	1,236.5	1,838.3	913.1
합계	10,646.6	8,374.6	8,373.3	17,772.6	27,428.6	19,343.9	15,347.9	22,282.6

자료: Secretariat of the Economy, Mexico.

위의 결과를 보면 NAFTA 이후 멕시코에 투자된 FDI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Cuevas *et al.* (2002)는 분석을 통해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함으로써 매년 40% 이상의 FDI가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또 다른 분석 (Waldkirch

2001)에 따르면, 멕시코는 NAFTA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FDI가 72% 이상 증가하였으나 다른 국가로부터는 FDI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NAFTA를 통해 FDI가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 들어 FDI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눈에 띄어 감소추세가 빠르다. 2000년 9,200 달러이던 농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는 2003년 이후 연간 1천만 달러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NAFTA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상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FTA를 체결하면 초기에는 모든 부문에 걸쳐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확대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선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김윤식, 「NAFTA 체결에 따른 멕시코 농업의 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0) 재정리